

경제 돋보기

■ 기아차 파업 왜 장기화 되나

# '일 덜하고 돈 더받겠다고 하나...' 교섭 결렬

기아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노조측이 17일부터 다시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4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18일만에 교섭을 재개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 1시간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사측은 서영중 사장 등 교섭위원 20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뒤 노조의 제의를 이뤄진 교섭이라 의견 접근을 기대했지만 노조가 주간 연속 2교대와 월급제 시행 등 쟁점사항에 대해 한발도 양보하지 않아 또다시 결렬됐다.

이로써 기아차의 임금협상은 지난 5월 17일 시작된 이후 3개월째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아차 임금협상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장 큰

## 使 '8+9시간 2교대'에 勞 '8시간씩만' 요구

### 3개월째 쟁점 대립... 오늘부터 또 부분 파업

이유는 쟁점사안에 대한 노사간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본급 5.5% 인상 ▲생계비 부족분 200% 이상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8+8)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본급 동결, 생계비 부족분 200%와 격려금 250만원 지급 외에 '8+9 방식의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이다. 노조는 현행 주야간 10시간씩(10

+10)인 근무시간을 8시간씩(8+8)로 바꿔 줄 것과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그러나 지난해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와 월급제를 합의할때 생산량 확보를 전제로 했음에도 노조가 조건없는 시행을 고집해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입장이다. 생산량 만회를 위해 추가 작업시간 확보와 생산성 상향조정, 생산효율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특히 노조의 요구는 근무시간은 줄이

면서도 10+10 체제의 월급을 달라는 것으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달라는 일명 '무노동 유임금' 요구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측은 노조의 요구대로 8+8 근무에 월급제를 도입하면 광주공장에서만 연간 7만대의 생산량 감소가 발생하고 회사 전체로도 연간 800시간의 근무시간 감축으로 21만대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올들어 9차례의 파업과 잔업거부로 지난 14일까지 광주공장에서만 1만700여대의 생산 차질로 1천78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협력업체도 450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받겠다는 노조의 요구가 임금협상 장기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1,600선 돌파 최대 관전포인트

### 엘로우칩 종목군 집중하라

지난주 미국 연준리가 제로금리정책과 국제매입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증시에는 다

된 성격은 외국인 중심의 유통성 장세라는 점이 있다. 폭발적인 외국

인 유동성이 유입되던 초기국면에서 핵심 블루칩에 집중하던 이들은 최근에는 눈을 돌려 업종대

표주 성격을 보유한 엘로우칩 종목군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세를 펼치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에 대

한 매수기조를 완전히 놓아버린 것은 아니지만, 지난 주말 지수가 재차 크게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등 대표주

이기는하지만 핵심 블루칩에서는 약간 비껴있는 종목들에 대해 관심을 크게 높이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최근 투신권이 일부 교체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까지

가세하면서 최근의 종목장세 양상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기관의 자금사정이 여

유롭지 않고, 개인들의 직접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증시흐름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종목장세

의 전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분간 종목별 군용할거는 철저하게

외국인 관심종목군에 초점을 맞추며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나



박종모

〈굿모닝 신한증권

광주지점장〉

## 불볕 더위 야간 쇼핑족 '복적'

### 유통업계 하루매출 비중

### 저녁 시간대 25% 차지

최근의 불볕 더위로 야간 쇼핑족이 늘고 있다.

16일 광주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2~15일까지 오후 9시~자정 매출 비중이 전체매출의 27.3%를 차지했다. 하루 매출의 4분의 1이 심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 역시 심야고객의 증가하면서 전일보다 8시 이후 매출이 25~30%가량 증가했다.

심야시간대 방문고객들은 주로 가족단위가 많았으며 이들이 많이 찾는

품목은 맥주, 음료수, 수박, 사과 등 이었다.

온라인 몰에도 야간쇼핑족들이 늘고 있다. 옥션에는 8월 둘째 주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시간대 매출이 전

일보다 10%가량 증가했다. 야간쇼핑족들이 늘자 이마트에서는 31일까지 매일 심야고객을 대상으로

야식상품을 30% 할인해 판매하는 '야호 할인찬스'를, 홈플러스 역시 이달 말까지 오후 9시 이후부터 주요생필품을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야한 세일'을 진행 중이다. /이문기자 emlee@



주말이었던 지난 15일 저녁 광주신세계 이마트에는 쇼핑을 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북적였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우 잘 들립니다. 2. 스트레스 없습니다. 3. 기분 좋게 살 수 있습니다.

**국제보청기**

www.kib.com

본점 (대전) 227-9940 / 수원점 (061) 752-9940 / 목포점 (061) 262-9200 / 총괄회 (063) 227-9970 / 익산점 (063) 851-2422

**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프리드」가 있습니다

- 1. **안전한 시스템을 갖춘 서비스**
- 2. **전문가가 함께하는 서비스**
- 3. **편리하고 신속의 장례서비스**
- 4. **과학적, 체계적인 장례시스템**

미라마리 프리드하체요리 1600-8204